

금융당국 개편안 논란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논란이다. 금융위원회(공무원조직)와 금융감독원(공직 민간조직) 내부도 어수선하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금감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남는다. 금감위 아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금감원 내에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해 금감원,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효율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내세웠다. 하지만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금감위와 금감원 간 권한 조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감위가 정책을,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한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정책 설계 기관인 금감위가 사실상 금융감독 가이드라인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 금감원의 독립성이 흔

들릴 수밖에 없다. 시장 안정과 공공성이란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 결국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이 요원해진다.

또 조직 슬림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핀테크 등 새 분야는 보다 세분화된 감독국이 필요하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상위 부처의 통제 아래 묶이면서 혁신을 뒷받침하기보다 리스크 감지 능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일부 핵심 기능이 금감위로 집중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정책 보조기관’으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보호다.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만든다. 건전성 검사와 소비자보호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소비자보호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정보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금융민원이 돈과 엮힐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금소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소원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 법무법인으로 달려간다는 것이다.

금감위가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고,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논란이다. 금감원이 경징계만 담당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략하는 꼴이다. 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돼 경영·재정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민간조직의 경영평가를 정부가 하는 꼴이다. 금융회사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입이 나왔다.

조직개편은 명확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감독 독립성 확보, 소비자보호 강화, 신흥 금융환경 대응이란 큰 방향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 그 위에 조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편은 권한 다툼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탄생한 ‘불완전한 타협안’으로 비춰진다.

정부가 이제라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과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변호인이었던 이찬진 원장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답해야 한다. ‘앙고 빠진 찌뽕’ 상태가 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bluesky3@metroseoul.co.kr

AI 결제 전쟁,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구글 클라우드가 최근 공개한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AP2)’은 결제 시장을 뒤흔들 만한 선언이다. 사용자가 AI 에이전트에게 결제 권한을 위임하면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결제가 실행되는 구조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까지 아우르는 범용 표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마스터카드, 페이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인베이스, 유니온페이 등 60여 글로벌 기업이 협력에 참여한 사실은 이 시도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국제적 표준 경쟁의 서막임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

페이는 최근 AI 에이전트와 연계 가능한 결제 MCP와 토크를 선보였다. “송금해줘”라는 음성 명령으로 결제 링크를 생성하거나 취소, 상태 조회까지 가능한 초기 기능이다. 네이버페이 역시 생활금융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결제 접점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간편결제는 단순 편의의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AI가 소비자의 패턴을 학습해 ‘대신 구매’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팩트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AP2가 공개됐다고 해서 AI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완전 자동 결제’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거래는 사용자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에 근거해야 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진행된다. 구글 역시 보안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아직 글로벌 결제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용화 일정도 확정되

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의 연동 서비스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자동화 수준은 제한적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분명하다. 결제는 더 이상 금융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AI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관여하는 순간, 결제는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플랫폼 경쟁의 최종 관문이 된다.

결국 승부처는 속도가 아니다. 소비자 신뢰다. 결제 권한 위임, 개인정보 보호, 이상 거래 발생 시 책임 소재 같은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 영역이다.

AI 결제 전쟁은 이미 시작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자동화를 구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진짜 승부를 가를 것이다.

/vitna@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7월 2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48년생 수영을 하러 물가에 왔으니 해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60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듯 독서를. 72년생 실수를 덮으려고 말을 억지로 우겨대지 말 것. 84년생 미련은 빨리 버려라.

 소

37년생 오후에 간담상조肝膽相照의 친구 문병 가야. 49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61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73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85년생 돌팔매질을 하면 큰일 난다.

 호랑이

38년생 세상이 변화되어 탄 세상이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50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치 않는다. 62년생 오후 7시 계단조심. 74년생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86년생 집안에서 곁들기만 하는 신세이니 이른 오전에는 외출하자.

 토끼

39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51년생 계획해온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린다. 63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75년생 내가 다하면 부모님께서 불편해 할 것이니 참아보아라. 87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커진다.

 용

40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52년생 몇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해나간다. 64년생 이직이 쉽지 않으니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76년생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보다는. 88년생 세월이 흐르니 부모님 은혜를 알 것 같다.

 뱀

41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53년생 옳다 해도 생색내지 말아라. 65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다. 77년생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음주로 놓칠 수 있음을 인식. 89년생 군계일학群鷲一鶴이란 말이 나와는 맞지 않으니.

 말

42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덤벼라. 54년생 부모로서 명모삼천명母三遷되간다. 6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다시 마음이 혼란하다. 78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을. 90년생 주변에 잔재주를 가진 사람도 인재를 필요할 때가.

 고양이

43년생 경기침체가 온다니 걱정. 55년생 마트를 가보니 오른 물가를 실감. 67년생 말만 앞세우지 말자. 79년생 유리하면 좋아하고 불리하면 싫어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감탄고토甘香酢라 한다. 91년생 나이 들어 투자는 거지가 될 수 있음.

 원숭이

44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56년생 목표한대로 이익이 나니 감사. 68년생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직장의 상황판단이 된다. 80년생 청년은 미래를 논한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92년생 이제라도 나를 개발해보자.

 닭

45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57년생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69년생 미팅에서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81년생 진실이 늘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 93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다.

 돼지

46년생 밀렸던 자금이 수급된다. 58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70년생 상처는 나아도 흉터는 남는다. 82년생 태평한 시절의 평화로운 모습을 강구연월康衢煙月이라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94년생 오후에 음주 운전 하지 말아라.

 돼지

47년생 큰 재물은 노력과 수고가 따른다. 59년생 무리한 산행으로 다리 부러질 수. 71년생 이직해봤자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83년생 백화점에 가니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질하다. 95년생 보리 아삭이 자라듯이 집안이 물 흐르듯 평화롭다.

김상회의四季 밀크티 예산

필자가 십년도 넘은 초겨울 언젠가 오후 4시 좀 넘어야는 분이 운영하는 복촌 근처 찻집에 가게 되었다. 주인장은 밀크티를 대접하겠다고 화로 위 긴 손잡이가 달린 편수 냄비에 찻잎과 생강, 정향 그리고 아마도 월계수 잎으로 기억되는 잎들을 함께 끓이다가 우유를 더 넣고는 좀 더 끓여 영국의 앤틱 풍취가 그윽한 로얄알버트 잔에 내었다. 허기가 살짝 돌던 참에 은은하게 풍기는 생강과 어우러진 정향의 향취도 그리웠지만 달콤 씹살하면서도 부드럽게 혀끝에 와 닿는 밀크티는 신들의 음식이자 음료인 엠브로시아나 넥타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주인장이 함께 내온 두툼하고 촉촉한 비스킷과 밀크티를 접한 이후 희한하게도 한국은 전통적인 녹차도 그러하지만 서양에서 더 인기가 많은 아삼티와 다즐링 등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의 차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커피가 대세라지만 아직 필자의 취향은 홍차를 우려낸 후 우유와 생강즙을 살짝 가미한 밀크티다. 이걸 간단하게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밀크티이고, 제대로 만들자 치면 아삼티의 재료가 되는 찻잎이나 실크티 찻잎에 월계수나뭇잎 약간, 계피 약간 넣어서 끓이다가 마지막 즈음에 우유를 넣고 끓이면 훌륭한 밀크티가 된다. 대부분 시럽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즐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밀크티에 비스킷이나 스콘을 곁들이면 매우 훌륭한 요기가 되기도 한다. 르네상스 계몽시대를 이끈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귀족들이나 철학과 문학, 예술을 이끈 살롱 문화에 있어 차는 그야말로 시대적 지성을 있게 한 매개체일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중국의 원나라, 청나라는 차 문화에 빠진 이국의 정복자들을 나약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소리까지 있는 것이나 밀크티만큼은 영양보충제요, 감기약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6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매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2	9	8	1	9	4	6
8	9	1	4	6	9	7	2	8
1	6	9	2	7	4	8	9	8
9	1	4	8	2	7	6	8	9
9	2	8	6	1	8	4	7	9
2	8	7	9	1	6	8	1	4
7	4	6	8	9	2	5	8	1
6	8	7	4	9	1	9	1	2
4	9	9	1	8	8	2	6	7

8	6	9	2	7	8	4	1	9
4	9	2	1	6	8	9	7	8
9	7	1	8	9	2	6	8	
8	9	7	9	1	4	6	8	2
6	8	8	7	2	1	9	4	4
2	4	9	8	9	6	8	7	1
1	2	6	4	8	7	9	8	9
9	8	4	9	8	1	7	2	6
7	1	8	6	9	2	9	4	8